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대학교는 Langara역인 밴쿠버 중간정도에 위치에 있어서 학교 끝나고 다운타운이나 쇼핑몰 등 놀러가기에 30분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걸어서 10분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학교규모는 건물이 한 4,5개 정도여서 넓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이나 발표회 장소건물이 다 평지여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공부하는 건물 1층에 팀홀튼(카페)이나 푸드코트가 있어서 이용할 수 있었고 점심은 1층 카페테리아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수업 시작하고 1주일 이후에 랑가라 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책상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건물들이 오래되지 않아 넓고 깨끗했고 화장실은 위아래가 뚫려있는 구조라 조금 당황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서관은 홈스테이에 학교 학생이 있어서 몇 번 같이 가봤는데 넓고 1층은 떠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학생증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시험기간이라 많이 바빠 보였고 같이 3주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이랑은 밥도 같이 먹고 재밌게 지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첫날 가면 오전에 듣기 평가를 보고 그 점수를 토대로 반을 나눴습니다. 한 반에는 18명 정도가 정원이었고 저희 때에는 일본학교와 한국학교만 왔기 때문에 일본친구들이랑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은 한국인 학생이 4명밖에 없어서 더 영어를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어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반은 Adam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수업을 나가는 것보다 회화수업을 위주로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책보다는 회화수업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숙제는 거의 내주지 않으셨고 매번 자리를 바꿔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게 도와주</p>

	<p>셨습니다. 2주차에는 박람회처럼 4~5명씩 조를 짜서 강당에 가서 박람회처럼 조별로 부스에 찾아오는 학생에게 설명하는 발표수업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반별로 축하공연 식으로 졸업식에서 공연을 했는데 같이 춤연습도 하고 노래연습도 같이 해서 준비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보다는 친구들과 영어로 재밌게 놀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약 <p>처음에 나눠준 일정표에는 목요일이었으나 저희 반은 수요일에 간다고 해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2반씩 요일에 정해서 이동했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카약을 갖고 학교에서 준비한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카약은 굉장히 햇빛이 세기 때문에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선크림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약 도중에 노를 저을 때 물이 많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린넨 소재로 된 옷을 가져가서 옷이 빨리 말랐습니다. 또 목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물병도 가져가시고 돌아올 때는 카약을 약 30분동안 쉬지 않고 젓기 때문에 노래들을 수 있게 방수팩 같은것도 가져가셔서 노래를 들으시거나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다운타운 <p>아침에 5명씩 조별로 현지 대학생 가이드와 밴쿠버 시내여행을 같이 합니다. 가면서 종이에 있는 질문지를 같이 풀면서 다니기 때문에 펜이나 종이 받침대 가져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도 챙겨가시고 신발도 편한 운동화 신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반팔에 셔츠입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또 저희 팀은 시장에 가서 점심을 해결했기 때문에 사먹으실 분은 따로 점심 안 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p> ● 아쿠아리움 <p>아쿠아리움은 학교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가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아쿠아리움에서도 종이를 나눠주어 돌아다니면서 질문에 답하는 게 활동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개인별로 돌아다닐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쿠아리움은 동물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 동물을 보는 것 보다 환경보호나 쓰레기 전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이 스탠리 파크 내부에 위치해 있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빌려 공원 내를 돌았습니다.</p> ● 밴쿠버 박물관

	<p>박물관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크고 볼 것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박물관도 역시 질문지를 나눠주어 전시를 보고 답을 찾아야 하는 활동이 주어졌고 개별적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슬러 여행 <p>휘슬러는 저희가 가는 날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학교에 휘슬러까지는 약 4시간정도가 소요되어서 아침 7시까지 학교를 가야 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스쿨 버스를 타고 가고 중간에 폭포 관광지에 한 번 들러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비가 와서 구름밖에 보이지 않고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롱패딩이 생각날 정도로 추웠습니다. 옷은 3~4겹 입고 갔고 도착해서 곤돌라를 타고 산 중턱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날씨가 좋았다면 리프트를 한 번 더 탔을 텐데 저희 때는 운항이 취소되어서 그냥 다시 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타운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날씨가 다시 맑아져서 다시 외투를 벗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근처에 식당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있어 먹거나 기념품도 살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오니까 저녁 7시 정도 되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아침과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반팔과 긴팔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겹옷을 입고 낮에는 반팔만 입고 다녔습니다. 또한 비가 중간중간 왔다가는 날씨가 많아서 우산도 가벼운 것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날씨가 추울 줄 알고 반팔을 2개만 가져갔다가 생각보다 더워서 가서 옷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안전은 낮에는 정말 안전하지만 밤에는 홈스테이 주변에 가로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서 위험합니다. 또한 홈리스들이 다운타운에는 많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그냥 무시하거나 빨리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Hastings거리에는 홈리스들이 터를 잡고 지내기 때문에 대마초냄새나 경찰이 체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8시 반 정도에 지기 때문에 많이 늦게까지만 놀지 않고 들어가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p>

<p>숙소</p>	<p>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처음에 홈스테이 음식 설문지에 야채를 다 싫어한다고 적어서 냈는데 4살 아이가 살고 있는 중국인 집에 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중국인이라 밥을 먹었고 청경채 반찬을 좋아해 자주 저녁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주인들이 사는 1층과 학생들이 사는 지하층으로 나뉘져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1층에 연결되어 있어 1층으로 들어갔으며 계단을 통해 지하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층에 부엌과 화장실이 다 구비되어 있어 따로 요리를 해서 먹거나 늦은 밤에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은 밥을 밖에서 먹고 가는 경우에 왓츠앱을 통해 미리 알려 주거나 내일 점심을 위해 남은 저녁을 싸달라고 하는 연락만 하면 되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어려서 놀랐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저는 별탈 없이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또 처음에 갔을 때 아몬드과자를 선물로 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p>
<p>식사</p>	<p>학교식당 () 외부식당 (V) 기타 (V)</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주로 홈스테이에 주방을 이용할 수 있어 제가 만들어 먹었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를 주로 만들어 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니 많이 물려서 저녁을 먹지 않는 날에 홈스테이에 부탁해서 남은 저녁을 다음날 점심으로 많이 싸갔습니다. 저녁은 처음 3일 정도만 홈스테이에서 해결하고 점점 친한 친구들이 생겨서 남은 날은 거의 친구들과 외식을 하였습니다. 외식 비용이 최소 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돈을 넉넉히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p>
<p>교통</p>	<p>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은 학교에서 교통카드를 주기 때문에 따로 요금을 내야 하는 일을 거의 없습니다. 노스 밴쿠버나 리치몬드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1.25달러 정도는 따로 추가해서 내야 했었고 버스는 추가요금 없이 모두 학교에서 주는 카드로 이용가능 했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학교를 바로 가서 교통카드를 나눠주기 때문에 첫날에서 마지막 날까지 모두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는 공항에 랑가라 측에서 선생님이 카드를 걸으러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교통비는 걱정하지 않고 늘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보험료	1,728,900	보험료 35,430
Eta 비자비용	6,000	캐나다 7달러
식비	350,000	외식비
쇼핑비	300,000	
여가비	160,000	
합계	2,580,33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영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3주가 정말 짧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배운만큼 들리고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식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전은 넉넉히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옷은 생각보다 싸지는 않았고 한국에서 살 수 없는 브랜드나 화장품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과자나 기념품 같은 것들도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는 밥으로 먹기에는 한국인 입맛에는 많이 물리기 때문에 비비고나 컵라면 꼭 많이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에서는 불닭볶음면 하나에 3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간 후 남는 것은 친구들에게 선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통금시간이 있어 평일에는 10시, 주말에는 10시반에는 홈스테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늦게까지는 놀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외를 넘거나 다른 곳에서 외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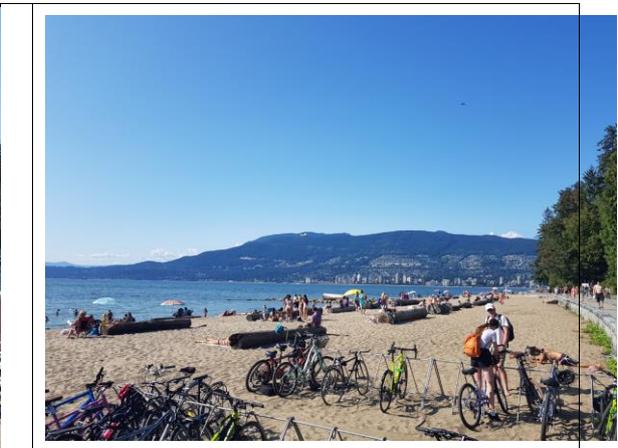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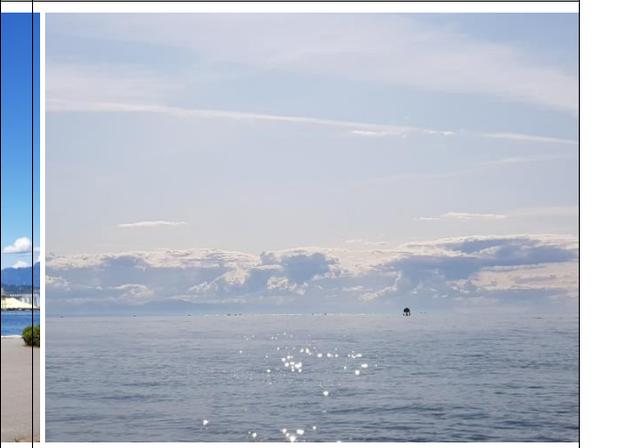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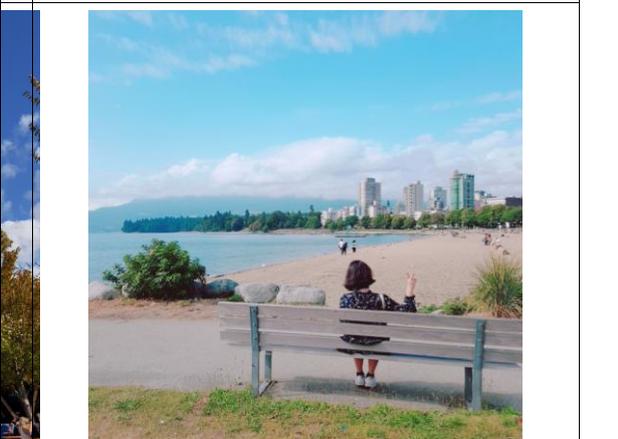
해야하는 여행은 아예 금지되었고 당일치기로 멀리 가는 여행은 따로 여행보고서는 미리 작성 한 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에 다들 오길 잘한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말한 것을 보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맞아주시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인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도 항상 맑고 구름이 정말 예뻐서 하루하루가 정말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3주동안 지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가서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내가 정말 좁은 한국에서만 살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정말 넓고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캐나다에 한번 더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카약 탔던 바다</p>	<p>스탠리 파크 내 해변</p>
	
<p>스탠리파크</p>	<p>UBC내 Acadia Beach</p>
	
<p>Whisler Olympic Village</p>	<p>English Bay</p>